



영원한 열세 살



좋은 곳에 갔으니, 아픔이 없는 곳에 있으니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천국이 아무리 좋다한들 제 자식을 앞세워 먼저 하늘로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다. 아무리 이놈의 세상이 요지경이고 사는 게 지옥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서둘러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이는 없다. 내게 죽음은 그런 것이다. 이 세상에 괜찮은 죽음은 없다.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다. 감히 잊으라 말할 수 있는 죽음은 없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극단적이고 극적인 소재는 없다.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꼬르뚜가 아저씨의 죽음으로 전 세계의 독자들을 울렸고 만화 '들장미 소녀 캔디' 속 안소니는 여우사냥 중 말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면서 캔디뿐 아니라 수많은 소녀들의 영원한 첫 사랑으로 남게 되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 '러브스토리', '편지' 속 주인공들의 사랑이 가슴 절절하고 더 애절한 것도 다 주인공의 죽음 덕분이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감으로 독자 혹은 관객들은 주인공과 함께 절망하고 슬픔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놀랄만한 이야기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없이 가벼워진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지닌 무게이다.

하지만 실제로 유가족들에게 죽음은 책이나 영화처럼 마냥 감정적일 수만은 없다. 가족의 죽음은 현실이고 당장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수두룩 널려있기 때문이다. 나도 예외일 수 없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나는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지를 정하고 계산해야 했다. 식당 메뉴를 고르듯이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진 옵션들 중 빠른 결정을 해야만 했고 가격을 따져야 했다. 결혼식 음식 메뉴 고르듯이 장례식장 음식도 골라야 하고 새집 고르듯이 납골당 자리도 정해야

했다.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만만치 않았지만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스러워 더 눈물이 났다. 꼭 해야 하는 절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차별을 받고 그 격차는 결국 돈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너무 허망해서 차라리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장례식장의 풍경도 마찬가지다. 슬픈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슬프지만 아름답고 아름다운 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단한 곡소리나 울음소리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오고 가는 근황 이야기가 도란도란 들리고 중간중간 웃음소리도 섞여 나온다. 금방 자리를 떠나려는 손님에게 한술 뜨고 가라며 소매춤을 당기며 억지로 앉히고 잠시 후 돌아와 보면 금세 한 공기가 비워져 있다. 그 안에서 아마 가장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던 사람이 나였을지도 모른다. 중간중간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리셋하듯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러면 눈에서는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자동적으로 눈물이 흘렀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열이 빠져 있었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손님 맞이에 훨씬 정신이 없었다. 축하 대신 위로를 받고 있었지만 나의 결혼식이나 아이들 돌잔치 때처럼 나는 큰일을 치르는데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낳고 쓰러져 있을 때도 그랬다. 정신없이 의사, 간호사, 청소직원, 모유 수유 상담사, 사회복지직원 등이 들이닥쳤다. 퇴원을 하고 돌아가서도 쉴 새 없이 모유 수유를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이 예방주사를 마치고 출생신고를 하러 가고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쏟아졌다. 한 사람을 이 세상 일원으로 만드는 일은 참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싶었다. 그냥 쉽게 어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들

을 하늘로 보내며 처음 깨달았다.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기는커녕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해야 할 일들이 연이어졌다.

지난여름, 만열세 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은 오는 2월 2일이면 열네 살이 된다.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생일은 매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케이크 위에 나이만큼 초를 꼽는 대신 영정사진 초를 밝히겠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대신 지나간 추억을 기억해야겠지만 특별한 날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몇 해 전 나보다 먼저 일곱 살 딸을 하늘로 보낸 한 엄마가 말했다. 딸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7년 후 딸이 하늘로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웠을 거라고. 헤어짐의 슬픔도 딸이 주었던 사랑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열네 살 생일에도 여전히 열세 살인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며 나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지만 내 대답 역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변함없이 아들의 생일을 축복한다.

영원한 열세 살 내 아들이, 생일 축하한다. 내 아들로 태어나 내 아들로 살았던 십삼 년이 내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다. 평생 그 축복과 기쁨 잊지 않고 살아갈게. 너는 세상에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우리와 함께 할 거란다. 아들이,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은 너를 향한 그리움이고 사랑이니 엄마를 보며 너무 슬퍼 말고 평안하렴. 사랑한다 아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약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 새집 분양, 엘바인 및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리톤 단층 하우스	요바린다 타운홈/콘도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3 화 3 1,562sf 대지 6,500sf \$550,000	방 3 화 3 2019년생 1,669sf 3층구조 \$730,000	방 3, 화 2 1,505sf 대지 6,320sf \$690,000	방 1 화 1 700sf \$2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요바린다 단층 하우스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1 1,100sf 넓은 대지 6,100sf \$590,000	방 3 화 2 1,540 sf 대지 6,000sf 완전 리모델링 한집 turn key \$690,000	방 2 화 2 1,056sf 대지 5,000sf 1984년생 \$540,000	방 3 화 3 1,496sf 대지 5,150sf 한인 상권 가까운 곳 위치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3 화 2 1,583sf 대지 6,000sf 은행교회 아리랑마켓 가까운 곳 \$590,000	방 3 화 2 1,537sf 넓은 대지 7,000sf 좋은 학교 \$610,000	전체 리모델 방 5 화 2 1,665sf 대지 7,500sf 새 부엌, 새 appliances move in ready \$690,000	방 2 화 3 1,362sf 완전 리모델링한집 트로이고등학교 도보거리 \$540,000
엘바인 타운홈/콘도	엘바인 콘도	엘바인 콘도	엘바인 타운홈
방 2 화 3 새 마루 새페인트 1,460sf West Irvine \$650,000	2006년생 1,052sf 방 2 화 2 일층 위치 fully furnished \$520,000	방 3 화 4 1,590sf 2020년생 포틀라 Brisa \$728,000	2002년생 방 3 화3 1868sf 낮은 HOA 게이트 단지 \$789,000
*부에나팍 새집 분양	*브레아 새집 분양	*위티어 새집 분양	라미라다 시니어 단지
3층 구조 *교통과 위치 좋은 곳 1. 방 2 화 2.5 1,250sf \$500,000 부터 2. 방 3 화 3 1,500sf \$550,000 부터	3층 구조 2,253sf 방 3개 부터 방 5개까지 탁트인 오픈 플로워 플랜* 학교 좋은 지역 \$690,000~	2층 또는 3층 방1~방4 구조 900sf 부터 1,950sf까지 최신 시설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수영장 등등)	방 1,2,3 (55세 이상) 24시간 가드 상주 넓은 게이트 단지 한국 마켓 가까운 곳 위치 \$290,000~

주책/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